

계명대 소장 『유연전 후서』를 통해 본 『이생송원록』*

김영연**

- I. 머리말
- II. 계명대 소장 『유연전』의 체제와 『유연전 후서』
- III. 『이생송원록』의 체제와 특징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권득기(權得己, 1570~1622)의 『이생송원록(李生訟冤錄)』을, 계명대 소장 필사본 『유연전』에 실려 있는 이항복의 『유연전 후서(後敍)』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유연전 후서』는 현재까지 제목만 알려져 왔고 실물은 전해지지 않은 자료로, 『이생송원록』의 창작 동기와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담고 있다. 『유연전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연전』의 내용과는 달리, 『유연전』의 작가 이항복 스스로도 유연 옥사의 주범을 이지(李穰, 1523~1579)로 단정하는 데 유보적이었다는 점 및 유연 옥사 당시 유유로 사칭했던 사기꾼 채응규에게 현혹된 사람들이 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유연전 후서』의 내용 중에서도 당시 유연 옥사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이지의 무고(無辜)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를 위주로 유연 옥사의 전개를 재구성한 것이 『이생송원록』이다. 본고에서는 계명대본 『유연전』에 실린 텍스트들의 내용을 참조하여, 현재까지 창작연대가 불확실했던 『이생송원록』의 창작

* 본 논문 초고를 심사해 주신 세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그 중 『유연전』과 『이생송원록』이 상충하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유연전』의 주장만이 널리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를 제기하신 의견이 있었다. 그 점은 『유연전』의 수용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치 있는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나 본고의 흐름상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그 점을 후고를 기약한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시기를 1609년 이후로 비정(比定)함과 더불어, 내용 면에서 이지의 무고함을 뒷받침할 근거로 채응규의 성공적인 사기 행각을 상술하였고 특히 유연까지도 채응규의 사칭에 속았음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였다.

핵심어: 이생송원록(李生訟怨錄), 권득기, 유연전, 이항복, 계명대본, 유연전후서, 옥사수말

1. 머리말

본고는 권득기(權得己, 1570~1622)의 『이생송원록』을, 계명대 소장 필사본 『유연전』에 실려 있는 이항복의 『유연전 후서(後敍)』와의 비교를 통해 고찰한다. 이 작업은 이항복(李恒福, 1555~1618)의 『유연전』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종전까지 알려진 『유연전』 이본을 조사하는 가운데 발견한 계명대학교 소장 필사본 『유연전』의 존재를 소개하는 작업을 겸한다.²⁾

『유연전』은 17세기 초 전(傳) 양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³⁾ 대구 양반의 아들인 유연이 형 유유를 죽였다는 혐의로 처형된 지 15년 후, 유유가 살아있음이 밝혀짐으로써 유연이 신원된 사건은 『명종실록』과 『선조실록』에도 실려 있다. 이 스토리는 이항복에 의해 입전된 직후 인쇄되어 당대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⁴⁾ 유연의 억울한 죽음을 놓고

2) 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 주신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의 최경훈 선생님의 후의에 감사드린다.

3) 조선 시대 문학사의 전개 과정에서 유연전의 위상을 조명한 글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박희병, 『한국고전소설 연구의 방법적 지평』, 알렙, 2019, 181~182면. 또 『유연전』에 관해 참조할만한 연구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이수봉, 『유연전 연구』, 『호서문화연구』 제3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83, 139~168면; 이현홍, 『實事의 小說化: 『柳瑞傳』을 중심으로』, 『한국고소설의 조명』, 아세아문화사, 1990, 355~372면; 정공식, 『『유연전』에 나타난 상속과 그 갈등』, 『법사학연구』 제21집, 한국법사학회, 2000, 83~100면; 송하준, 『관련 기록을 통해 본 『유연전』의 입전의도와 그 수용태도』, 『한국문학논총』 제29집, 한국문학회, 2001, 75~101면(이 논문은 『원천 소재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수용 양상』, 2017, 9~44면에 부분 개고되어 재수록되었기에 이하에서는 단행본 소재 논문을 따른다.); 신해진, 『『유연전』의 악인 형상과 그 행방』, 『어문연구』 제54집, 어문연구학회, 2007, 243~274면; 신상필, 『사실의 기록과 『傳』 양식의 새로운 가능성: 『유연전』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제39집, 동방한문학회, 2009, 121~141면.

4) 현전하는 『유연전』 이본 목록은 조희웅에 의해 정리된 바 있다.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그 책임이 유연의 자형 이지(李祿)에게 있는지 여부가 당대에는 논란이 되었으나, 결국 「유연전」의 시각대로 이지에게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후대의 기록이 수렴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⁵⁾

종전까지 「유연전」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유연전」과 경합했던 「이생송원록」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난점이 있었다. 유연 옥사에 대한 당대 문인들의 언급을 추적한 연구에서도 유연 옥사 담론의 시대적 추이를 개괄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이생송원록」에 대한 본격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연 옥사가 「유연전」이라는 영향력 있는 텍스트로 정착되는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연전」과 상이한 시각을 보이는 「이생송원록」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필요하다.

종전까지 「이생송원록」은 이지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는 신빙성 없는 자료라고 일축되어 왔다.⁶⁾ 그러나 「유연전」 역시 유연 처 이씨 측의 기록에만 의존하여 이지에게 불리한 정황만을 수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는 각각의 두 기록 중 어느 한 쪽이 믿을 만한가를 따지는 것은 전근대 시기 문인들의 논의를 반복하는 데 불과하다. 사건 서술에 대해 어느 쪽이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미한 연구 질문이 될 수 없다. 유연 옥사에 관한 발언을 담은 여러 자료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유연 옥사의 진상이 아니라, 유연 옥사에 관한 당대인들의 의견들이라는 점이

집문당, 1999, 477면) 이에 따르면 성균관대 도서관에 「유연전」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나, 송하준의 지적과 같이, 해당 이본은 이항복의 「유연전」과는 전혀 무관한 스토리를 담은 국문 고소철이다. (송하준, 앞의 논문, 9면) 필자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 「유연전」 이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1726년에 세 번째로 간행된 이항복의 『백사집』 영영본(嶺營本)에 실려 전하는 문집 소재 「유연전」이다. 둘째는 「유연전」만 단독 간행된 것으로, 여기에는 목판본과 필사본 두 종류가 있다. 목판본이 「유연전」 창작 직후 가장 널리 유통된 것으로 보이며, 최기의 발문을 포함한 것과 포함하지 않은 것 두 종이 있다. 목판본은 영영본 『백사집』에 실려 있는 것과 차이가 없다. 필사본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계명대학교 소장본이 유일하다. 해당 필사본의 「유연전」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실어 놓은 점이 주목된다. 본고에서 「유연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한 박희병의 다음 교주본과 번역본을 활용하고 따로 면수를 밝히지 않는다. 이항복, 『柳淵傳』,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박희병 표집·교역, 소명, 2005, 386~400면; 이항복, 「유연전」, 『봉이 김선달』, 박희병·정길수 역, 돌베개, 2018, 135~164면.

5) 김영연, 「『이생송원록』을 통해 본 「유연전」과 유연 옥사 담론」, 『국문학연구』 제38집, 225면.

6) 송하준, 앞의 논문, 39~40면; 신상필, 앞의 논문, 13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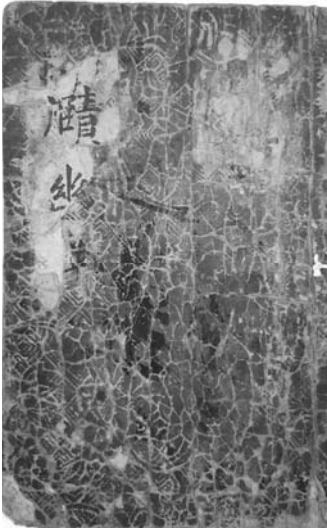
분명히 자각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유연전」 연구의 일환으로, 「이생송원록」의 내용을 집중 검토하되, 그에 앞서 계명대 소장 필사본 『유연전』에 수록된 「유연전 후서」와 「옥사수말」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항복이 「유연전」을 저술한 다음에 지은 「유연전 후서」는 이덕형(李德馨, 1561~1613)과 김시양(金時讓, 1581~1643)의 기록에 그 제목만 언급만 되었을 뿐 실물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종전의 연구들에서도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정에 기초해 논의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유연전 후서」는 「유연전」 작자의 시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유연전」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던 측의 시각을 이해하는 데 긴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장에서는 계명대본 『유연전』과 그에 수록된 「유연전 후서」 및 「옥사수말」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이생송원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유연전」 이해의 시각을 정립해 보겠다.

II. 계명대 소장 『유연전』의 체제와 「유연전 후서」

1. 계명대 소장 『유연전』의 체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소장된 『유연전』(1책, 총 35장)은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필사본 자료다. 또한 이 책은 「유연전」 및 최기(崔沂, 1553~1616)의 발문과 이항복의 「후서」를 싣고 있으며, 「옥사수말(獄事首末)」이라고 하는 공초 기록(26.5장 분량)을 수록하고 있다.



도판 1. 계명대 소장 『유연전』 표지



도판 2. 계명대 소장 『유연전』 제1면



도판 3. 계명대 소장 『유연전 후서』



도판 4. 계명대 소장 『옥사수말』

『유연전』 필사본에 수록된 『유연전』에는 작품의 일부 구절들에 대해 총 12군데에 방점(傍點)이 가해져 있다.⁷⁾ 이들 구절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거나, 문식(文飾)이 가해진 부분, 전고(典故)가 활용된 부분이다. 그 외에 여타 목판본 『유연전』과의 글자 차이는 거의 없다. 『유연전』 말미에는, 초간본 『유연전』들에 수록되어 있는 최기의 발문이 필사되어 있고, 이어서 『유연전 후서』가 수록되어 있다.

『유연전 후서』는 1300여자 분량의 글로, 『유연전』에서 서술한 내용 중 이항복 스스로도 적언치 않다고 생각했던 사항들을 추가로 논의한 글이다. 『유연전 후서』에 따르면 이 글도 『유연전』과 마찬가지로, 이원익의 요청으로 지은 것이라 한다. 즉 이원익이 제공한 바, 이지의 집에 소장된 별록 및 권응인의 『송계만록』 내용을 참조하여 기유년(서기 1609년) 봄에 쓰인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⁸⁾

『유연전 후서』에 이어서 『옥사수말』이 실려 있는데, 이 글은 계명대본 『유연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35장 중 약 26.5장 분량에 달하는 『옥사수말』은 도판 4에서 보인 것처럼 대체로 한 면당 12행 29자 정도의 규칙으로 필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26장 1면, 총 53면 분량의 『옥사수말』은 총 18,000여자 정도의 분량이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채유규가 달아난 후 유유의 아내 백씨가 경상 감사에게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을 둘러싼 시간원 및 의금부의 계(啓), 소송 관련자들의 공초, 및 이지가

7) 방점이 찍힌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言出門庭，既父與妻爲徵，鄉人信之不疑；②③ (채유규가 말했다) “嗚呼！汝廝與淵陰謀，前到海州，反欲王郎我也…”；④ (대구부사 박응천이 말했다) “服改矣面衰矣，其友雖不識汝，汝若眞游，豈不識友生？今汝吐實，庶或見原，否者，當以官刑從事。”；⑤ (유연이 말했다) “(백씨가) 先堅亦織，視崖二人，遙爲聲勢，響應影附，必欲成獄者，亦厥有由。”；⑥ (이지가 말했다) “坐語良久，徵一家事，輒響答如符契，言辭動止，果游無疑”；⑦ (유연이 말했다) “猶且不自，則皇天后土及父母之靈，昭布上下，汝其夜夜祝禱，幸假冥佑，冀獲應珪，以慰我九地之寃神…”；⑧ (윤선각이 말했다) “我兒裕勇書屬耳，此若眞游，則自西而南，爲弟所弑，其間日子，無幾何矣，何若是遽歟？”；⑨ 先是，李氏常宴居深念，謀所以白淵寬萬方；⑩ (논평) 幸矣！當時網疎而槩獨漏也；⑪ 設令游有大不得已而違親遠逝，晉公子在秦，天下無不知，何乃過爲浪迹隱端，致弟枉死也？；⑫ 妻能囚首喪面，竭情祈告，至白首如一日，宗黨謂爲能處慘禍云。

8) “『유연전』을 쓴 지 3년 되는 기유년(1609년)에 오상(梧相)【제상 이원익이 ‘오리’(梧里)라 자호(自號했다)】가 다시 글을 보내어 달성(이지-인용자)가에 소장된 별록과 세간의 이른바 『송계만록』 한권을 아울러 보냈다. 그 책을 받아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을 이어 밝힌다.”(後三年己酉春 梧相【李相元翼 自號梧里】復移書，并以達城家所藏別錄，及世所稱松溪漫錄一卷，授余續發其溫.)

물고되기 직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내용 등을 광범위하게 신고 있어 유연 옥사에 관해 기왕에 알려진 여타 자료에 비해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옥사수말』은 김시양의 『부계기문(涪溪記聞)』에서 “옥사(獄辭)”라고 칭한 글을 가리키는 것 같다. 김시양은 함경북도 종성(鐘城)에서 귀양살이 하는 동안 『부계기문』을 썼는데 거기에 이항복의 「유연전 후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⁹⁾ 김시양은 무신년(서기 1608년)에 이항복의 「유연전 후서」와 이지의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옥사(獄辭)”라는 글을 보았다고 주장했다.¹⁰⁾ 이 글에서 김시양은, ‘옥사’에 기묘년(1579년)에 유연 옥사를 복계(覆啓)한 말이 자세히 실려 있다고 했는데, 『옥사수말』에는 유연을 재판했던 내용과 더불어 1579년, 유유의 등장으로 열린 재심에서 관련자들이 증언한 말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만 김시양은 「옥사」 내용 중 1579년 재판 기록에 실린 심판관들의 인적 사항에 오류가 많다는 점을 들어 「옥사」의 신빙성을 전면 부정하였다. 또한 자신이 「옥사」를 본 이후, 자신이 지적한 오류가 개정된 「옥사」가 다시 만들어졌다는 말을 옮겨 놓았다.¹¹⁾ 계명대본 『유연전』에 실린 「옥사수

9) 신상필이 이 점을 처음 지적하였다. 신상필, 앞의 논문, 130~131면.

10) “무신년(1608년)에 내가 허경보(許警甫)를 방문하였는데, 이지의 아들 이언관이라는 자가 소매에 책 두 권을 넣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 하나는 바로 오성 이항복이 찬술한 『유연전』의 후서(後敍)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집에 간직하고 있는 옥사(獄辭)로, 오성이 그것을 취하여 후서를 지은 것이다. … 그 옥사라는 것을 보니, 복계(覆啓)한 말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戊申余訪許警甫, 視之子彥寬者, 袖二卷書以示之, 其一乃鰲城所撰柳淵傳後敍, 而其一則渠家所藏獄辭, 鰲城所取以爲敍者也. … 觀其獄辭, 詳載覆啓之語) 김시양, 『부계기문』.

11) “내가 말하기를, “복계는 기묘년 봄(1579년-이하 서기 및 인명 표시는 인용자)에 있었는데, 김공(金公-김귀영을 가리킨다)은 신사년(1581년)에 정승이 되었으니 기묘년에는 이조 판서였고, 이상(李相-이산해를 가리킨다)은 통정대부로서 지신사(知申事-도승지를 가리킨다)로 있다가 무자년(1588년)에 이르러서야 정승이 되었다. 박상(朴相-박홍구(朴弘耆)을 가리킨다)은 임오년(1582년)에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하였고, 조공(趙公-조인득(趙仁得))을 가리킨다)은 그해 겨울에 과거에 급제하여 계묘년(1583년)에 처음으로 한림에 뽑혀 들어갔으니, 그때는 모두 벼슬 없는 선비였다. 어떻게 복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으며, 김귀영이나 이산해 또한 어찌 대신의 반열에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였더니, 이언관은 얼굴빛이 변하여 도망가 버렸다. 그 뒤에 그 옥사를 본 자가 있는데 다 개정하였더라고 한다. (余謂曰, 覆啓在己卯春, 金公以辛巳入相府, 時則爲吏判, 李相時以通政知申事, 至戊子始入閣. 朴相壬午始釋褐, 趙公是年冬登科, 癸未始選入翰林, 是時皆布衣也. 安得預於覆啓之事, 金李亦安得在大臣之列乎? 寬也色喪而遁. 其後有見其獄辭者, 盡竄定云.)” 위의 글, 같은 곳; 신상필은 김시양의 주장을 대체로 신뢰하고 있다. (앞의 논문, 130면, “아마도 임관 이후 국가 기록의 부실과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는 점을 이용해 달성령의 자제들이 사건을 조작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김시양의 논쟁적 주장을 문면 그대로 인정할 별다른 근거는 없는 듯하다.

말」이 김시양의 주장대로 ‘개정」된 「옥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옥사수말」에는 유연 사건의 복계에 대한 당국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상세히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김시양이 1608년에 보았다는 글과 흡사한 글일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타 방증 자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옥사수말」의 저자와 편찬 연대를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옥사수말」과 이항복의 「유연전」, 권득기의 「이생송원록」간의 선후 관계도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어렵다.

「옥사수말」의 전체적 일개를 이항복의 「유연전」과 비교할 때, 「유연전」에 있는 내용은 전부 「옥사수말」에 나오는 반면, 「옥사수말」에 없는 내용이 「유연전」에 있는 경우는 없다. 사건 전개 순서도 거의 일치한다.¹²⁾ 유연 옥사와 관련해 각 텍스트가 어떤 사건을 일단 서술했을 경우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서술할 사건으로 택했느냐 아니냐의 문제, 상세한 정도, 인물들의 행위 동기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두 텍스트 간 차이가 있다.

「옥사수말」의 내용은 「유연전」의 스토리를 기준으로 보면, 유유를 사칭한 채응규가 보방(保放)되어 있던 틈에 종적을 감추자 유유의 아내 백씨가 경상 감사에게 정장(呈狀)한 대목부터 시작되어 이지가 죽음 직전 억울함을 항변한 내용 및 이지와 유유의 죽음을 알리는 데에서 끝난다. 「옥사수말」에 나오는 내용 중 「유연전」에 나오지 않는 주요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연이 채응규를 처음 만났을 때 왜 굳이 형으로 대접해서 대구까지 데리고 갔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더 들어가 있다. 「옥사수말」에서는 유연이 채응규를 만나기 전후에 채응규를 유유로 인정할지 여부를 묻는

12) 사건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대목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을 들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유연이 이지의 편지를 통해 채응규의 존재를 알게 된 때부터 유연이 채응규를 대구로 데리고 와서 재판에 부치는 과정에 대한 서술로, 「유연전」에서는 이 일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가장 앞에 나오는 반면, 「옥사수말」에서는 유연이 삼성교좌 추국에서 처음 증언할 때 회상하는 내용의 일부로 들어가 있다. 그 결과 「유연전」에서는 해당 사건들이 실제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기록한 듯한 인상을 주는 반면, 「옥사수말」을 보면 이 사건들이 유연의 관점에서 회상된 것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다른 하나는 유연이 죽기 직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아내에게 후일을 당부한 내용을 적어 보냈다는 편지로, 「유연전」에서는 해당 편지가 유연의 죽음 즈음에 등장하는 반면, 「옥사수말」에서는 진짜 유유가 나타나기 직전, 유연의 아내가 꿈에 죽은 유연을 보고 곧 진짜 유유가 나타날 것을 예고해 주자 의금부에 단자를 부쳐 상소한 내용의 일부로 등장한다. 그 결과 「유연전」에서는 해당 편지가 유연이 죽음 직전 자신의 원통함을 하소연한 자료라는 인상을 주는 반면, 「옥사수말」을 보면 유연이 죽은 지 16년 후에야 나온 수상한 텍스트라는 인상을 준다.

재판을 대구에서 벌일지 서울에서 할지에 대해 주변의 조언을 거듭 구한 결과 유유의 얼굴을 아는 증인이 많은 대구에서 재판하기로 결정했다고 서술한다.¹³⁾ 유연은 대구에서 재판을 벌이기로 결정했으므로 채용규를 대구로 탈없이 데리고 가기 위해 형으로 대접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지와 심룡, 김백전은 1차 옥사 당시 자신들은 서울에 살고 유유는 대구에 살았기 때문에 유유의 얼굴은 모른다고 주장한 반면,¹⁴⁾ 유연은 아버지 유예원과 형 유유가 서울에 체류한 적이 있어 저 세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유유를 만났기 때문에 얼굴을 잘 안다고 주장했다.¹⁵⁾ 유연의 그러한 주장은 1차 옥사 당시 목살되었고, 형방승지는 유연이 형을 죽인 것이 분명하니 형추를 가해 심문하자고 계를 올려 윤허를 받았다.¹⁶⁾

셋째, 천유용(진짜 유유)의 등장 이후, 유연 옥사에 대한 재심 진행방식을 놓고 선조와 담당 관서 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옥사수말」은 천유용의 등장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한 서술이 분량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중 선조와 의금부 및 사헌부·사간원 사이에 오간 공방이 8개면에 걸쳐 서술되어 있다. 유유의 처 백씨를 심문할지 여부, 춘수가 옥사의 주모자를 이지로 지목한 진술을 더 자세히 받아내기 위한 심문을 계속할지 여부, 유유를 반부(叛父)의 죄목으로 처벌할 것인가 여부 등에 대해서 선조와 신하들은 대립하였다.¹⁷⁾ 특히 심룡을 심문할 것을 양사에서 여섯 차례나 요

13) 見達城令沈嶽，則皆矣兄樣以說道爲白去乙，矣身諸處廣議，則鄭元禧、南權段曰，“呈法司辨正可也。”正字李玄培段曰，“呈法司則必問于達城令沈嶽，此兩人若曰眞游，則發明無路，不如率歸呈本官，游妻及諸族鄉黨衆會處明辯可也。”掌令李光珍段曰，“古有永興君之事，其人善待率去，與白氏親見辨正可也。”與藥族金百千晝夜同處相議，則百千亦曰，“不如率歸”是如爲白臥乎等用良，不得已正月十四日率歸。

14) 達城令李視年四十二白等，“矣身與柳游，必于妻同生是白良置，矣身段在京，游段在鄉乙，仍于稀罕相見，…”…沈嶽白等，“矣段柳游亦妻四寸是白良置，各在京外，未嘗熟見面目，…”…金百千白等，“矣身亦在京人，以柳游容貌段詳知不得爲白在果，…”

15) 柳淵更推白等，“…達城令沈嶽設置，矣父累年在京入朝乙，仍于其時段，兄及矣身長在京家，故達城令沈嶽等與矣兄朝夕相見爲如可，…”

16) 刑房承旨啓曰，“事干視段，柳淵率去之人，果是柳游是如爲族，沈嶽金百千等段，與柳游以各在京外，容貌段詳知不得爲白良置，…柳游的實爲白乎矣，柳淵亦非其兄是如，路中結縛告官爲白在如中 欺害滅跡分明爲乎矣，謀免重罪，直招不冬，刑推得情爲白乎族…”啓曰依允。

17) 傳曰，“此人若其時率去之人，則淵之死宜也，非其人，則此必奸人詐僞，而淵之死冤枉莫甚。此人其時率去之人與否，視處爲先憑問爲乎矣，游妻不可不問，拿來憑問。”禁府面啓曰，“柳游妻白氏拿問事傳教，矣法典內，士族婦女非身祀之罪，則不可拿問。然此人若難辨眞僞，則不可不問事干，各人皆曰柳游此分不喻，視段置柳游的實是如爲去等，柳游的實爲白沙餘良，…”；府啓，“春

청했지만 선조는 이를 모두 거절했고 이 가운데 원색적인 말이 나올 만큼 긴장이 있었던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¹⁸⁾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선조는 유연 옥사의 판결 번복을 이끌 수 있는 심문을 꺼린 반면, 의금부와 양사에서는 판결을 뒤집을만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유유의 출현으로 본격화된 2차 재판에서 춘수와 이지가 형추를 가해 심문한 전후로 증언을 반복한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춘수가 이지를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하는 것은 형추를 가한 이후로 되어 있다.¹⁹⁾ 결과적으로 춘수가 최종적으로 추국장에서 증언한 내용만 놓고 보면 「유연전」의 내용과 같으나, 이 증언이 고문의 결과라는 점은 「유연전」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반면 후술할 「이생송원록」은 춘수가 고문 끝에 증언을 반복했음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이지가 옥중에서 억울함을 피력한 내용을 상술하였다. 옥중 상소를 통해 자신이 유연과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무복(誣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⁰⁾ 선조 역시 이지가 억울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고, 의금부도 이지가 주모자라고 주장했을 뿐, 이지가 어떻게 유연을 모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守雖曰己爲承服，多有未盡之事，視奴三伊終始與謀，而爲其主不服而死，則視與應珪之凶謀，他無可問，請命窮推。”答曰，“已盡承服，不允”；兩司啓，“天裕勇以叛父推鞠事傳教，叛父之罪，天地間極惡，若未知其逃出之由，而遽加叛父之罪，則非但於天裕勇或有極天之冤，於國家亦有失刑。父死而不奔，弟死而不出，此罪則有之，論以叛父事爲未安，請命還收叛父之命。”答曰，“此人治，人紀滅矣。不允”

18) 兩司啓，“沈嶽何人也已自上獲之至此？應珪與視之凶謀，惡莫大焉，沈嶽終始與知，舍此不問，從何得問罪名？雖有首從之異，而其於推覆得狀，殊無輕重也。豈可以視獨受其刑，而嶽得免其責乎？請命窮推。”答曰，“柳淵當初錯認其兄，率歸于鄉，予未見其可惜也。不允”；臣等請之鞠沈嶽者，非臣等之私言，此乃一國之公論，請勿留難，亟命窮推。”答曰，“不允。累月論啓不允下。故停啓。”傳曰，“沈嶽放送。”

19) 春守刑問八次白等，“他餘事段，前招內已盡納招爲白在果，蔡應珪上京時，慶億謂應珪曰，沈嶽金百千以爲疑，明日汝來到吾家，取飯時，使婢欣介爲進止，汝謂吾父曰，此婢欣介，前日給我云，兄其忘耶云，則沈嶽金百千之惑，可解云云爲旆，矣身拿來時，止宿於龍仁行院，則有一幕主老嫗，傳給慶億診藥，開見則其書云，法司以應珪爲柳游淵爲弑兄論啓，吾父亦以此對答，汝若雜談，當蒙死罪，吾父一樣對答，千萬勿以柳游爲應珪，亦勿爲逃走云云”爲白有齊。

20) 視獄中上疏曰，“臣伏以宗室末裔，濫荷天恩六十年來，優游食祿，莫非殿下之賜。… 臣見其欺於應珪而不察柳游之真僞，固臣之罪也。至於教誘應珪假作柳游，非臣之所敢謀也。… 春守乃三省交坐罪人也。各官各驛，不分晝夜星火相傳，則托老嫗傳簡又無其隙，況其時幕主持言老嫗，則在今必死，無路憑問，其他誣招，亦皆以謀免已罪，飾詐無形之說，以爲陷臣之計，徒信一么女，反覆誣招相繼冤死，則後日哀臣之非命，亦有今之柳淵也。柳淵先可親同生弟，初見之日，亦不知爲他人，握手痛哭，至於率歸，則臣之見欺於應珪，無足怪矣。”

내용은 불분명하다고 자인했다.²¹⁾ 이지는 자신이 어떻게 계획을 꾸며 유연을 죽게 했는가에 대한 자세한 증언을 요구하는 심문을 받다가 형문한 지 63차에 죽었다고 했다.²²⁾

이하에서는 「이생송원록」의 등장과 관련해 그 존재만 언급되어 왔던 「유연전 후서」에 대해 상론하고자 한다. 「유연전 후서」는 「옥사수말」과 달리 저자와 창작연대가 분명한 관계로 본고에서 논의의 초점으로 삼았다.

2. 「유연전 후서」의 내용

「유연전 후서」의 (이하 ‘후서’로 약칭)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입>

- (1) 「유연전」 서술에서 미진했던 점: 채응규의 정체, 돌아온 유유의 행적, 이지의 행위 동기
- (2) 이원익의 자료 제공(1609년): 이지 가(家)에 소장된 별록과 권응인의 『만록』

<본문>

- (3) 채응규의 정체와 그의 사기 행각
 - (3)-1 채응규가 유유에 관한 정보를 남김없이 알게 된 내력과 개명(改名) 경위
 - (3)-2 채응규의 사칭 행각
 - (a) 평소에 사람들을 잘 속였고 촌부들과 공공연히 음란한 짓을 하여 중화(中和) 군수 안상(安瑞)이 채응규를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함
 - (b) 이혼당한 여성의 남편으로 행세하여, 그 여성을 속여 넘김
 - (3)-3 채응규를 유유로 인정한 최초의 인물은 이자첨(유유의 표종형 이자 군관)

21) 傳于禁府曰, “視之罪, 如無一毫可疑, 則當輸情, 爲限刑訊矣. 有一毫可疑, 則不無其冤.” … 禁府面啓, “大臣之議, 視謀陷柳淵事狀, 固無可疑, 所以謀陷之情, 則終不可側. 伏惟上裁.”

22) 傳曰, “加刑.” 禁府啓曰, “視刑問六十三次物故.”

(4) 채응규에 대한 전언(傳言)이 와전된 경위 및 논평

- (4)-1 유연 처 이씨가 소장한 기록과 이지 가 소장 기록 간의 내용 차이
- (4)-2 허의손(유유의 처 백씨 측 증인)의 갑자년(1564년) 공초 : 채응규가 유유 행세를 하기 위해 주장했던 백씨의 신체 특징
- (4)-3 심룡의 공초: 채응규가 유유의 숙모의 여종(선덕) 얼굴을 알아봄
- (4)-4 김백천의 공초: 채응규가 유유의 형의 종(건이) 얼굴을 알아봄
- (4)-5 작자 이항복의 논평

<마무리>

(5) 이지를 무고하다고 본 심수경(沈守慶, 1516~1599)의 시각

도입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연전』의 세 가지 미진한 점 중, 정작 『후서』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채응규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이며, 이지를 무고하다고 볼 정황에 대해서는 소략하게만 다루고 있다. 또 유유가 백씨와 절연한 이유에 대해서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요컨대 『후서』의 상당 부분은 채응규가 얼마나 능숙한 사기꾼이었는가를 강조하는 데 바쳐져 있다. 채응규의 사기술을 방증하기 위해 채응규가 유유를 사칭하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고, 어떤 유사한 범행을 했었는지, 채응규가 유유로 행세할 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속았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일례로 채응규는 유유로 행세하기 전에도 이미 다른 인물로 가장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춘수의 공초에) 이르기를, 채응규가 방술로써 무리를 미혹했고 무당들을 모아 도장(道場)을 차려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회롱했으며, 촌 아낙들과 공공연히 음란한 짓을 한다는 악명이 멀리까지 퍼졌다고 했다. 안상(安瑒)이 중화(中和) 지역을 다스릴 적에 관리를 보내어 채응규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했다고 한다. 또 들으니, 장련(長連)에 한필성이라는 사람이 있어 딸을 이정랑이란 자에게 시집보냈는데, 내침을 당해 외로이 살고 있었다. 채응규가 어둠을 틈타 한씨에게 찾아갔더니, 한씨는 채응규가 남편이 아닌 줄을 모르고, 채응규를 자기 남편 이정랑으로 대우했다고 하니 그 설이 종잡을 수 없다. 대저 (채응규의) 이 모든 일은 둔갑을 잘한다는 사람의 부류인 것이다.²³⁾

이상의 사례는 채응규가 유유를 사칭하기 전에도 이미 다른 인물로 사칭한 전력이 있었다는 설이 돌았음을 보여준다. 위 사례는 「이생송원록」에도 이언용(이지의 아들)이 전하는 말로 전제되어 있다.²⁴⁾

또한 「후서」에서는 가장 처음 채응규를 유유라고 주장했던 이자침의 공초와 더불어, 허의손(유유의 처 백씨의 여종의 남편), 심룡, 김백천(유연 일가의 서족)의 공초 내용을 소개해 놓았다. 그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자침도 같은 때의 공초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유유의 표종형(외사촌)입니다. 평안병사의 군관으로서 교체되어 오던 길에 해주에 묵었는데, 성안의 어떤 사람이 와서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의 외모가 옛날에 알던 사람 같았는데 제가 처음에 의심하였더니 그 사람이 묻기를 대구의 표형이 아니냐고 했고, 또 온 가문 사람들의 생존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옛일을 물으면서 “유유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들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닌가?” 하자, 그가 즉시 제 손을 잡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과연 그렇습니다. 멀리서 형님을 뵈려고 어렵게 왔다가 부형의 부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고는 그대로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저 역시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내가 서울에 들어가면 당신 집안에 알릴 테니 당신은 여기 머물러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에 들어가 그 아우 유연에게 편지를 썼고, 또 이지를 만나 그 얘기를 했더니 이지도 함께 유연에게 편지를 부쳤습니다.”²⁵⁾

또 이상한 점은 이것이다. 허의손이라는 자가 백씨의 여종에게 장가들어 동거하면서 여러 해 동안 유연과 함께 지냈는데, 유연과 함께 채응규를 만나러 왔을 적에

23) 又云, 應奎以方技惑衆, 聚巫覡爲道場, 遊戲村中間 與村婦淫醜聲遠聞, 安瑞爲中和發吏捕不得蔡. 又聞長連有韓必成, 以女嫁李正郎者, 卽見絕孤居, 便暗投於韓, 韓不辨, 乃待之如眞李, 其說愴怳. 大抵皆善眩者流也. 이항복, 「유연전 후서」, 「유연전」(이하, 같은 곳에서 밝힌 출전은 따로 달지 않는다.)

24) “春秀云蔡以方技惑衆, 聚巫覡爲道場, 遊戲閭閻, 村婦多被其淫. 中和守安瑞聞而惡之, 發吏捕不得. 長連有韓必成女, 嫁李正郎, 三日而見棄, 孤居有年. 蔡聞之, 假裝李正郎, 乘夜投韓, 韓信之不疑, 此卽稱游之手段, 而見人輒認, 呼名字者, 殆由於左道乎! 而其淫慝之性, 亦可想矣.” 권득기, 「이생송원록」, 『만회집』 4 (이하 출전은 「이생송원록」에서 인용한 부분은 출처 생략.)

25) 子瞻同時供辭云, 臣是游表從兄也. 以平安兵使軍官遙來投宿於海州, 城內有人來見, 形容依旧, 臣始疑之, 其人仍問大丘表, 及一門存沒, 時或嘯唏. 臣問, “昔聞柳游匿迹於此, 你無乃是歟?” 其人便執臣手, 垂泣而語曰, “果矣. 望見表兄, 顛倒而來, 得聞父兄之訃矣.” 因痛哭良久, 臣亦感泣曰 “吾入京, 當報你家, 你可留此以待.” 及入京, 爲書告其弟淵, 且見禔言之, 禔亦同附書. 然則認爲柳始於子瞻.

계책을 내어 시험 삼아 상알(上謁)을 청하면서 말하기를, “대구 정병(正兵)이 상사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가 뵙고자 합니다” 하자 채응규가 멀리서 보고 말하기를, “너는 처가의 여종 옥대의 남편, 그 낚시 잘하던 놈이 아니냐?” 했다고 한다.²⁶⁾

또 같은 해 심룡의 공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돌아가신 장모님의 생신에 다례(茶禮)를 올렸는데, 여종 선덕이 다례에서 남은 음식을 채응규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채응규가 말할길 “오늘은 바로 숙모의 생신이니, 이는 필시 제사상에서 남은 음식이겠구나. 너는 숙모 살아계실 적 여종이구나.” 하자 선덕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습니다.²⁷⁾

김백천의 공초에는, 유유의 형 유치(柳治)에게 종 건이가 있었는데 건이가 길에서 채응규를 만나자 채응규가 그를 부르며 앞으로 오게 해서 말하기를, “너는 돌아가신 형님의 종 건이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형님 발인(發引) 날 조령(鳥嶺)에서 수레가 뒤집어진 일을 잊겠느냐? 너를 보니 생각이 나는구나” 했으니 이 같은 말을 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²⁸⁾

이들의 증언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채응규가 유유의 주변 인물들을 보자마자 이들의 신원을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채응규가 유유의 주변인들을 곧잘 알아보았다는 이상의 증언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이생송원록』에 더욱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상기한 『후서』의 내용에 따르면, 1579년에 이르러 소위 ‘진짜’ 유유가 나타나 판결이 번복되기 전까지, 채응규가 유유라고 믿었거나 최소한 반신반의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후서』에서 이지가 무고할 수 있다고 보는 주된 근거는, 이지 역시 채응규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며, 이지 외에 다른 사람들도 채응규에게 속았다는 점에 있다. 『후서』의 논조는 『이생송원록』에서 이지가 채응규를 유유라 한 적이 없다고 극력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는 소극적이다. 하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후서』의 내용을 극력 배척했던 김시양의 주장처럼 『후서』에서 이항복이 이지에 대해

26) 又可怪者, 有許義孫者, 娶白婢爲妻, 同宮而居, 多歷年所與濶階來, 欲以計試之上謁曰, “大丘正兵聞上舍來, 請入見。” 應奎望見曰, “聘家婢玉臺夫, 善釣弋者也。”

27) 又其年沈懿之供云, 妻亡母生辰設茶, 今婢宣德餽餽於應奎, 則曰, “今日乃叔母生日, 此必祭餘, 汝是叔母生時婢也。” 宣德感泣而來。

28) 金百千之供云, 游兄治有奴巾伊, 路遇應珪, 則呼使前曰, “汝非亡兄奴巾伊耶? 何不識我亡兄發引, 鳥嶺轎車之事。因汝省記。” 若此類甚多。

마냥 우호적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이지 가에 소장된 별록에서 왔다는 공초 내용의 증명력을 상당히 유보적으로 보는 데에서 드러난다.

허의손과 건이의 용모는 말로 전해 들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자첨을) 멀리서 바라보고 평소 알던 사람처럼 불렀다는 것은 그 일이 허황되어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백씨와의 침상에서 있었다는 일에 이르면 비록 이리이리 말할더라도 은밀한 일이라 증명하기 어려우니, 지각 있는 자가 말할 바 아니다. 유독 이자첨의 공초의 경우, 숨긴 내용이 없다면 혹시 무인(武人)이라 성품이 거칠어서 상세한 내용을 빠뜨린 것일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채응규의 설을 듣고는 혼연히 미혹되어 믿어서 이지에게 전했다가, 이지도 또 현혹되어서 이 일을 전달하는 가운데 와전되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²⁹⁾

요컨대 이항복의 입장은 김시양의 비난과 달리 채응규를 유유라고 했다는 이지의 증언이 비교의적 인지 오류에 기인한 것, 즉 이지도 채응규를 유유로 믿었을 것이라는 선에서 정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항복은 이지의 ‘오인’에 대해 동정적으로 서술한 권위자의 말을 빌어 글을 마무리하였다.

청천(聽天) 심상국(沈相國)은 내 아버님의 집우이다. 일찍이 『만록』을 저술하여 유연의 일 아래에 다음과 같이 적으셨다. ‘달성령 이지가 이 일로 인해 옥에 갇혀 마침내 매를 맞아 죽었다. 달성령이 했다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얼굴은 유유가 아닌데 유씨 가의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다 말하니, 생각컨대 외양은 변했으나 의심컨대 유유인 듯했다는 것이다. 인정상 그럴 만하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달성령이 거짓으로 채응규를 유유라고 하여, 유연을 함정에 빠뜨려서 유연의 재물을 나누려 했다고 하였다. 유연이나 유유의 처나 모두 채응규를 오인하여 유유라고 보았으니, 그렇게 오인할 줄은 실로 이지로서는 미리 알 수 없는 것이다. 어찌 가짜를 진짜라고 할 계책을 내었겠는가? 채응규가 갇혀 있다가 도망간 일이나, 유연이 무복하여 죽음에 이른 일은 이지로서는 더욱 미리 알 수 없었을 일이다. 어찌 유연을 함정에 빠뜨려 재물을 나눌 계책을 내었겠는가? 이 모두 자세히 생각하지 않은 말이다.’

29) 至於義孫，巾伊之容，非可以言語傳習，而洒望而呼之如素熟者，其事誕幻有難測知，至於白氏床第之說，雖有云云，聞味無證，非知者所宜道也。獨子瞻所供，如無遁情，則或者武夫粗略欠詳密，一聞蔡說欣然惑信，以傳於視，視又見惑輒轉訛謬，以至於是歟？

심상(沈相)은 식견이 넓고 명민하여 일세에 이름이 있었다. 그가 일찍이 당대의 일에 의문을 가져 글을 지어 부록을 붙여 반복함이 이와 같았다. 그러니 이 점을 기록하여 후대에 말을 아는 자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³⁰⁾

즉, 『후서』의 시각은 이지가 고의적으로 유연을 죽게 했다는 시각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지 편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족스러웠을 법하다. 이렇듯 이항복의 미온적인 반응은 『이생송원록』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III. 『이생송원록』의 체제와 특징

1. 『이생송원록』의 체제

반면 이지가 유연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세간의 주장에 대해, 이지의 아들 시각에서 이지의 억울함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한 기록이 『이생송원록』이다. 총 8,500여자 분량의 『이생송원록』은 크게 다섯 부분의 내용 단락으로 되어 있다. 『이생송원록』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입 (九月己丑~不一而足)
저작 경위와 사건 개요
2. 본문 1: 유연 옥사의 진행 경과 (時朴判書啓賢爲諫官~有不難辨者矣)
 - 2.1. 1차 재판: 개시 내력, 서울 사건 증인 공초, 영남 사건 증인 공초, 유연 공초 및 처형
 - 2.2. 2차 재판: 개시 내력, 이지의 진술과 죽음
 - 2.3. 이언용의 시각에서 본 유연 옥사
3. 본문 2: 유연전의 문제점 (迺者淵妻李氏~豈敢厚誣)

30) 聽天沈相國，余之父執也。嘗書漫錄，記淵之下曰，達城以此囚，推竟死柩下，詳聞達城令之言曰，‘面則非游，而家中之事，人所不知，皆言之，意謂形容雖變，疑是游也云。恐其情理，或然也。時人皆謂達城佯以蔡爲游，欲陷淵而共分其財。淵與游妻，皆誤認蔡爲游，實所未料，何敢生以僞爲眞之計乎？蔡之被囚逃竅，致淵誣服以死，尤所未料，何敢生陷淵分財之計乎？皆是不詳思之言也。沈相通敏名一世，嘗疑當時事，至附以說，反覆如此，則不可以不錄，以竣夫後之知言者。

- 3.1. 유연전 창작 근거자료의 신빙성 문제
- 3.2. ~3.12. 유연전 각 대목들의 문제점
- 3.13. 유연전 서술의 문제점 총괄: 춘수의 무고와 이씨 가승의 오류
4. 마무리 (噫眞游出~目之曰李君訟冤錄)
 - 4.1. 유연도 안타깝게 생각할 것
 - 4.2. 이원의 이항복 두 정승의 공감 표명
 - 4.3. 작자 권득기의 공감 표명

도입과 마무리 부분을 제외하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대별된다. 두 차례의 재판 과정을 이지 측 관점에 입각해 서술한 전반부(본문 1)가 하나이고, 이항복의 「유연전」의 세부 서술 사항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후반부(본문 2)가 다른 하나다. 본문 1에서는 「후서」 내용에 토대를 두되, 이지가 유연을 모함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더욱 확대해 놓았다. 이를테면 「후서」에 이미 서술된 바 있는 증인들인 이자첨, 김백천과 심룡의 증언을 전재(轉載)·부연한 것이다. 한편 본문 2에서는 「유연전」의 세부 내용을 지적하면서 각 구절들의 모순점을 지적하였다.

2. 「이생송원록」의 특징

「후서」와의 비교를 통해 「이생송원록」을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후서」 말미에 명시된 기록 일자에 의하여 「이생송원록」의 창작연대를 1609년(기유년) 이후로 비정할 수 있다.

9월 기축일에 내가 남양의 시골집에 있었는데 동향 사람 이언용 군이 찾아와 유연전 후서라는 책 하나를 나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승에서 억울함을 안고 계시는데 이 서문(유연전 후서를 가리킴·인용자)에 의지하여 억울함을 조금 풀었으나, 그 상세한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지 못한 것이 항상 한스러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한두 가지를 대략 진술하겠으니, 당신이 드러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했다.³¹⁾

31) “鄉人李君彦容來訪，授余以柳淵傳後敘一冊曰，“吾先人抱重泉之冤，賴此序而小伸矣。尙恨其詳有未能盡學者，我爲子略陳一二，而子盍爲我揚之？””

그간의 연구에서는 「유연전 후서」의 내용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생송원록」의 창작 연대 역시, 「이생송원록」이 수록되어 있는 문집 내 작품들의 내용을 통해 미루어 짐작한 결과, 1608년에서 1609년 사이로 추정하는 데 그쳤다.³²⁾ 그러나 「유연전 후서」가 1609년 2월에 작성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유연전 후서」를 토대로 창작된 「이생송원록」의 창작 시점은 1609년 이후로 추정되어야 한다.

둘째, 「이생송원록」의 전반부에서, 「후서」 내용을 확장한 것의 끝자는 다름 아닌 유연이 채응규를 유유로 믿었다는 것이다.³³⁾ 「이생송원록」은 「후서」에 등장했던 증인들, 즉 채응규를 유유로 보았던 증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더하여, 유연조차 채응규를 적극적으로 유유라 인정했다는 일화와 증언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후서」에도 등장하는 김백천의 공초에는 2장에서 보았듯이 유치의 종 건이를 채응규가 알아보았다는 일화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다.

유연이 서울에 올라왔을 적에 제가 달성령(이지-인용자)의 집을 찾아갔더니 유연과 채응규의 자식 채경백도 왔는데, 채경백이 유연의 방한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달성령이 유연에게 물기를, “자네의 형은 내가 보기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자 유연은 “이 아이 얼굴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비슷하니 또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하고는 경백을 가리켜 보였습니다.³⁴⁾

유연이 채응규의 아들을 보고서 작고한 자기 아버지 유예원의 외모와 닮았

32) 송하준은 권득기가 처음 「유연전 후서」와 「송원(訟冤)」을 접한 것을 1608년 9월로 추정했고, 『만회집』 권4의 편차 순서를 통하여 「이생송원록」을 1608년에서 1609년 사이의 작품으로 보았다. 송하준, 앞의 논문, 38면. 또한 같은 페이지에서, 『만회집』 권4에 실린 「부여경상사술고서(附興慶上舍述古書)」에 나오는 “초상을 거둬서 치렀다(蒼經喪厄)”이라는 구절을 근거로 「부여경상사술고서」의 창작 시점을 1609년으로 본 다음, 「부여경상사술고서」 앞에 실린 「이생송원록」을 1608년에서 1609년 사이의 작품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권득기는 1610년(庚戌年) 6월에도 모친상을 치렀으므로 「이생송원록」의 저작 착수 시점을 1608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3) 앞서 언급했듯 「옥사수말」에서는 유연이 채응규를 처음 봤을 때부터 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옥사수말」의 그러한 서술과 상반된 주장을 제시한 여타 관련 자료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할 것 같다.

34) 及淵上來, 臣訪達城家, 淵及應珪子景白亦至. 景白戴着淵紹皮耳掩, 達城問淵曰: “君之兄, 吾未詳眞假, 君謂何如?” 淵曰: “此兒面目, 彷彿先人, 又何疑也?” 因指景白以示云.

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이지의 공초에는 유연이 채응규를 유유로 인정했다는 대목에 더하여 김백천 역시 채응규를 유유로 인정했다는 말이 나온다.³⁵⁾ 『후서』에서 김백천은 본인의 말로나 다른 증인의 말로나 채응규가 유유라고 인정했는지 여부는 서술되지 않았지만, 『이생송원록』에 이르러 김백천 역시 채응규를 유유로 보았던 것으로 명시되고 있다.³⁶⁾

또한 심룡의 공초 부분에는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채응규가 종 선덕을 알아보았다는 일화를 실은 데 이어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추가해 놓았다.

유연이 유언이 친아우로서 (채응규를) 한번 보고는 형이라고 불러 회포를 풀면서 통곡하였으며 자신의 처가로 데리고 가서 대접하고 의심 없이 대했다고 했습니다.³⁷⁾

유언이 채응규를 유유로 보았다는 일화가 가장 상세하게 그려지고 있는 대목은 1차 재판 당시 춘수가 증언했다는 내용을 서술한 대목이다.

유언이 올라와서는 더불어 감격하여 울고 유연의 처가로 같이 갔는데 벽 위에 글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채응규가 즉시 알아보고 “이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수 쓴 글씨다.” 하고는 즉시 내려서 함께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습니다. 유연의 처가에 사흘간 머물고는 유연이 그와 함께 남쪽으로 가면서 제게 말하기를 “여기에 머물러 인마를 기다리라. 만약 길에서 (인마를) 만나면 마땅히 겸정(兼程)하여 올라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³⁸⁾

이 일화는 『유연전』에서는 1차 재판 때 이지의 증언을 통해 소략하게만 전달된 대목이다.³⁹⁾ 『유연전』에서는 유연이 서울로 올라와 채응규를 만났을

35) 淵曰：“景白面目，可驗其眞。”百千亦云：“柳游明白。”

36) 『옥사수말』에 따르면 1564년 옥사에서 김백천은 자신이 유유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유연전』에서는 김백천이 해당 옥사에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37) 後日淵以親弟，一見呼兄，絞懷慟哭，昇歸妻家，待之無疑云。

38) 及淵上來，相與感泣，與歸淵妻家，見壁上有字，珪卽認曰，“這是先君手迹。”卽令別取相看涕泣。留三日，淵與俱南，謂妾曰，“留此以待人馬，若值於路，當兼程上送。”

39) “유언이 저희 집으로 오자 두 사람은 끌어앉고 통곡했고, 병 때문에 거처를 옮겨 주었더니 마침 벽 위에 있던 부친의 글씨를 보고 형제가 마주보고 울었습니다.”(及淵之來，相持痛哭，因病移寓，適見壁上有父所書，亦相向而哭.)

적에, 채응규가 유유가 아님을 즉시 알아보았지만 임시방편으로 채응규를 대구로 돌아왔다고 했다.⁴⁰⁾ 그렇게 하여 유연이 채응규를 형으로 오인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게 한 것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생송원록』에서는 유연이 서울에 올라갔다가 내려간 날짜를 명시해 놓음과 더불어,⁴¹⁾ 유연이 채응규를 자신의 형으로 믿었다는 이야기,⁴²⁾ 몸이 아픈 채응규의 요양을 위해 이지의 집에서 가까운 유연의 처가로 채응규를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⁴³⁾ 옮겨간 유연의 처가에 걸린 유예원의 필적을 채응규가 알아보고 감격했다는 이야기를 실어 놓았다. 위에 보인 대목은 이들 일화 중 맨 마지막 사례에 해당한다.

채응규가 유유라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올라온 유연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 이항복의 『유연전』과 권득기의 『이생송원록』에서는 이처럼 상반된 스토리를 전하고 있다. 『유연전』 뿐 아니라 유연 옥사를 전하는 현전 자료 대부분은, 채응규의 사기 행각이 탄로 나고 소위 진짜 유유가 나타난 뒤의 관점에 따라 회고적으로 1564년 재판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진짜 유유가 나타나기 전까지 채응규를 유유로 믿었던 사람들의 입장이 잘

40) “머칠 뒤 유연이 도착하여 곧장 채응규의 처소로 들어가니,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병을 앓고 있다 핑계를 대며 누워 있는데 과연 모르는 사람이었다. … 유연은 당황해서 찢절매며 물러났다.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사람들과 의논해 보았다. 이지와 심룡은 입을 모아 “틀림없는 진짜 유유일세”라고 했다. … 유연은 서족인 김백천의 계책에 따라 채응규를 잘 대우하여 함께 대구로 돌아가기로 했다.” (居數日, 淵至, 直入應珪所, 則引衣覆面, 托言病苦而僵臥者, 果不知爲何許人. … 淵恟惶而退, 計不知所出, 博謀於衆, 禔與沈崧交口言: “眞游無疑.” … 淵從其庶族金百千計, 善視而俱歸大丘.)

41) “갑자년(1564) 정월 14일에 유연이 유유의 아내 백씨의 계집종의 지아비 허의손과 함께 말과 사내종을 데리고 와서 채응규를 맞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연은 임시 거처가 행하다는 이유로 채응규를 유연의 처가로 맞아갔습니다. 거기서 3일을 머물고 출발하여 대구로 갔습니다.” (甲子正月十四日, 淵與游妻白氏婢夫許義孫, 率騎僕來迎, 以旅寓荒涼, 邀歸淵妻家, 留三日, 發向大丘去了.) 이상의 서술은 『이생송원록』의 도입부에 나오는 것인데, 『이생송원록』 내의 다른 증인들, 이자첨 등의 증언에서도 유연이 1월 14일에 서울에 올라왔다가 채응규를 유유로 대접하고는 1월 17일에 대구로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을 참조. “今年正月十四日, 淵來相見, 亦不致語, 迎歸妻家, 仍向大丘, 則這人的是柳游云.” (이자첨의 공초); 正月十二日, 臣入番文昭殿, 十四日, 聞淵上來, 十五日, 出番, 則淵·百千·景白俱來. 臣問, “汝兒眞僞, 我未詳知.” 淵曰: “景白面目, 可驗其眞.” 百千亦云: “柳游明白.” 十七日, 淵與俱歸, 春秀則留待人馬, 廿二日下去. 此後則臣在京城, 專不聞知云. (이지의 공초)

42) 許義孫供略曰: 臣偕淵上來, 游呼淵兒名曰, “無恙, 夜夢與汝侍先君話, 今見汝來, 此夢驗矣.” 淵屋手曰, “相離八載, 得有今日. 但先君念兒不見而終, 終天之痛如何?” 相與感泣. (허의손의 공초)

43) 正月十四日, 跟淵上來, 淵呼兒話舊. 且曰, “這炕兒甚冷, 兒恐見傷.” 遂先歸妻家, 送驛昇. (익종의 공초)

남아있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유연에 대한 판결이 뒤집힌 이후, 채응규를 유유로 믿었던 사람들의 언행을 공공연히 기록하는 것은 유연 옥사 당시 채응규를 유유로 착각했던 사람들의 체모를 손상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생송원록」이나 「유연전 후서」를 통해서, 채응규가 등장한 1564년부터 진짜 유유가 등장한 1579년 사이의 기간 동안, 채응규를 유유로 믿었던 정도가 생각보다 높았을 수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선조실록에서는 유연 옥사를 두고 일었던 논란을 전하면 서도 1564년에 나온 인물이 유유이며, 유유를 유연이 죽었다는 관점에 동조하고 있다.⁴⁴⁾ 뿐만 아니라 「이생송원록」에서는 유연과 함께 대구로 갔던 채응규를 두고 진짜 유유가 아니라고 했던 인물이 당대 여론에 휩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남에서는 오직 서형(徐瀾)이라는 사람이 채응규를 유유가 아니라고 배척하다가 마침내 유연 편을 든다는 소리를 들어 사류(士類)에 끼지 못한 채로 죽었습니다.⁴⁵⁾

서형이란 인물이 당대의 압도적인 여론에 맞서 채응규를 유유가 아니라고 했다는 증언은 또 다른 기록에서도 발견된다.

이때에 향인(鄉人) 유연이 자기 형을 잃었다. 10년이 지난 후 유유라는 자가 나오자 사람들은 그가 가짜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 조야(朝野)와 족당(族黨)에서는 떠들썩하게도 다들 그 자가 진짜 유유라고 했다. 그런데 공만은 곳곳이 배척하면서 그 자가 유유가 아니라고 했다. 온 도가 시끄럽고 사람들이 공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비방하여 곤경에 처하게 되었지만 공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44) “성상(聖上)은 형옥(刑獄)을 맡게 분별하여 매번 사람을 죽인 범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촉하였다. 유연(柳淵)이 형을 죽인 일에 있어서는 대관(臺官) 정연(鄭淹)이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하였고, 원훈(元勳)이 엄익손(嚴荇孫)을 죽인 일에 있어서는 추관(推官)과 형조가 모두 엄호(掩護)하였으며, 진응기(田應麒)가 영령(英齡)을 죽인 일에 있어서는 간원(諫院)의 허엽(許晔)이 영령이 스스로 목매었다고 하였으나, 상은 모두 명백하게 판단하고 듣지 않았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탄복하였다.” (聖上明辨刑獄, 每於殺人之賊, 洞照事實, 柳淵之殺兄, 臺官鄭淹以爲可疑, 元勳之殺嚴荇孫, 推官、刑曹, 皆掩護之, 田應麒之殺英齡, 諫院許晔以爲英齡自縊, 上皆明斷而不聽, 一國之人, 皆嘆服.) 『선조실록』 5권, 선조 4년(1571년) 10월 2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45) 嶺南獨有徐瀾斥其非游, 而終受黨淵之名, 士類不齒以沒.

문을 닫고 스스로 믿는 지 오래였다. 진짜 유유가 나타난 연후에 비로소 대중들이 놀라 경탄하고는 전날에 공을 배척했던 것에 대해 혀를 깨물며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⁴⁶⁾

유연이 채응규를 만나러 서울에 왔을 적에 채응규를 유유로 알았다는 일화와 당시에 채응규를 유유로 믿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고 하는 증언들은 그 자체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화와 증언들은 이항복의 『유연전』에서 다소 기이하게 보이는 부분, 즉 한낱 지방 사족에 불과한 유연에 대해서 서울의 간관(諫官)이 나서서 유연을 서울로 체포해 와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위를 납득할 수 있게 해 준다. 『유연전』에서는 대구로 간 채응규가 사라진 후 유연의 형수 백씨가 유연을 닮으면서 옥사가 복잡하게 전개되던 무렵에 갑작스럽게 간관이 등장하여 임금에게 아뢰어 유연을 징치하라는 건의를 한다. 이 대목에 대해 『이생송원록』에서는 해당 건의를 한 간관이 박계현(朴啓賢, 1524-1580)이며 그의 서술 중매 박존심이란 인물이 유연 처가의 계집종의 자식이었던 이유로 유연이 형을 만나 기뻐하던 일을 전해 듣고 유연을 체포할 것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했다.⁴⁷⁾

이상과 같은 『유연전』 이외의 기록들을 참조해 볼 때, 유연이 채응규의 속임수에 실제로 속았건 아니건 간에, 유연이 채응규를 형으로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항복의 『유연전』은 그런 주장들을 일절 생략했고, 『후서』에서도 유연 역시 채응규에게 속았다는 세간의 증언에 대해서 침묵했다. 요컨대 유연 옥사의 전말을 이지

46) 時鄉人柳淵，失其兄游 十年而有柳游者出 人莫辨其僞，朝野族黨譁然，皆以爲眞 公乃抗言斥其不是，一遭喧嘩，衆謗莫禦，至於阨窮坎軻，而公尚不撓，杜門自信及其久，而得眞柳游者，然後衆始愕然驚歎，前日之排之者，至有欲捫其舌，而莫及焉。 서사원(徐思遠), 『樂齋集』 5, 『先考進士府君墓碣文』

http://www.ugyo.net/cf/fm/ykFm.jsp?CODE1=01&CODE2=01&CLSS=&B_SUJI_ID=KSA_C_M_A02000016&B_BOOK_ID=KSAC_T_A02000016_003&B_KWON_ID=001&B_STYLE_ID=001&B_KISA_ID=00002

47) 이때 판서 박계현이 간관이 되었습니다. 박계현에게 서술 중매가 있으니 이름은 박존심으로, 바로 유연의 처가의 계집종의 자식이었습니다. 유연이 형을 만나 기뻐하던 모습을 박계현이 박존심을 통하여 그 자세한 것을 얻어 들었으므로 드디어 유연을 지적하여 형을 죽였다고 하여 임금께 아뢰어서 조옥(詔獄)에 체포해왔습니다. (時朴判書啓賢爲諫官，朴有庶出從妹名存心，卽淵妻家婢子。淵之得兄權喜之狀，朴因存心曾得其詳，故遂指淵爲弑兄啓請，逮致詔獄。) 한편 『옥사수말』에서는 사간원이 논계했다고 하였다.

가의 시각에서 전달하고 있는 「이생송원록」 전반부를 통하여 우리는 「유연전」에서 생략하고 있는 유연의 행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생송원록」 후반부는 이항복의 「유연전」이 논쟁적인 주장을 담은 텍스트라는 것을 더 명시적으로 드러내 준다. 「이생송원록」 후반부에서는 「유연전」 서술상의 문제점에 대해 총 11가지 항목을 들어 반박하였다.⁴⁸⁾ 물론 그 반박 중에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도 있는가 하면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는 것도 있고,⁴⁹⁾ 전반부에서 이미 제기했던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텍스트 자체의 완성도를 저해하는 대목들도 있다.⁵⁰⁾ 그중, 유연이 대구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처에게 썼다는 편지를 실은 대목에 대한 공박은 주목할 만하다.

유연전에 이르기를 “유연이 대구 옥에 있을 적에 편지를 써서 자기 처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편지 내용을 보니, ‘모(某)의 음모【모(某)라는 것은 이 군이 스스로 자신의 아버님의 이름 지(祗)를 휘(諱)한 것이다】, 심룡의 음모, 백씨의 음모, 채응규의 음모’ 같은 말이 있는데, (중략) 게다가 이른바 ‘당신에게 몇 마디 남긴다’거나 ‘구천에 있는 나의 원통함을 위로해 달라, 정신이 혼미하고 기운이 다했다’ 거나 ‘곡하며 죽는다(哭死)’ 같은 말은 그 말의 기운이 비통하고 참

48) 열한 가지의 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지가 채응규를 유유라고 주장하면서 유연에게 데려가라는 편지를 썼다는 서술의 문제 ② 유유의 처 백씨가 온 집안 노복을 데리고 지역 경계에서 채응규를 맞이할 적에 계집종 놀빠가 채응규를 가짜라고 꾸짖었다는 서술과, 유연이 채응규와 백씨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백씨 측 증언 간의 상호 모순 ③ 김백천의 의견에 따라 채응규를 대구로 데리고 갔다는 부분의 문제 ④ 채응규가 보방된 상태에서 도망간 경위와 이 당시 춘수의 증언 문제 ⑤ 유연의 초사에서 이지가 유연이 벌급 받은 것을 투기했다고 서술한 대목의 문제 ⑥ 유연이 이지와 심룡이 옥사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대목의 문제 ⑦ 춘수의 초사에서 이지의 아들 이경역이 채응규를 보고 유유라고 했다는 대목의 문제 ⑧ 유연이 대구 옥에 갇혔을 때 이미 곧 죽을 사람처럼 아내에게 유연 같은 편지를 남겼다는 서술의 문제 ⑨ 춘수의 초사에 나오는 채응규와 혼가라는 여종의 관계 건에 대한 신빙성 문제 ⑩ 이지가 심통원에게 부탁해서 대구 부사 박응천에게 압력을 가하는 편지를 쓰게 했다는 서술의 문제 ⑪ 이지가 채응규와 춘수에게 지시해서 이들이 도망갈 것과 증언 시 말을 맞출 것을 지시했다는 서술의 문제.

49) 「이생송원록」에는 이지가 재물에 초연한 성품이라 유연의 재산에 욕심냈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지가 자기 부친의 유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 자기 만형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나 소송을 걸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지 친구의 친출을 면친해 주고도 대가를 받지 않은 이야기를 실어 놓았다.

50) 가령 ‘본문 2’ 중에서 유연전의 구절을 조목별로 반박한 내용 중 다섯 번째로 제시한 바 이지가 유연이 벌급받은 것을 시기했을 리 없다고 한 부분이 그렇다.

담하여 모두, 죽을 사람이 애통하고 원통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서울의 옥에서 고문하며 심문할 때에 나온 말이라면 옳겠습니다만, 대구에 있을 때에는 옥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었고, 경상 감사가 유연의 아내더러 (유연의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겠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무슨 고생스러운 것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씨가 어찌서 그 때 임금님께 호소하여 사정을 밝히지 않았으며, 진짜 유유가 나온 이후에도 이 편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내놓는단 말입니까? 알지 못하겠으나, 이 또한 가승(家乘)에 실려 있었던 말입니까? 유연의 편지 아래에 “원근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라는 여섯 글자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전문(傳聞)이 와전된 데에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모르겠습니다.⁵¹⁾

인용문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유연의 편지는 「유연전」에서 유연의 처형 사실을 서술한 다음에 제시되고 있다. 「유연전」의 시각을 따르더라도 유연이 대구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유연 재판을 주재하는 관원들이 유연의 억울한 처지에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므로⁵²⁾ 유연이 죽음을 예감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유연전」의 스토리 내에서 유연의 운명이 비극적으로 바뀌는 것은 유연이 서울에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이다. 따라서 대구 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유연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생송원록」을 이지 축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글로 보아온 기존의 시각⁵³⁾에는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생송원록」이 「유연전」

51) 淵傳曰: “在大丘獄, 爲書與妻”云云. 今觀其辭, “有某之謀, 【某者, 李君自諱其先人名視】 嵒之謀, 白氏之謀, 應珪之謀”等語, … 且其所謂“遺汝後言, 慰我九地之冤, 神昏氣乏哭死”等語, 詞氣悲痛慘怛, 皆將死哀怨之語. 若曰在王獄杖訊時則是矣, 在大丘則獄未必成, 而監司許爲直之, 何苦而爲此語耶? 若然則李氏何不於其時叫呼天闔以彰夫冤, 眞游出後, 又不出此書, 而始出於今日耶? 不知此亦家乘所載耶? 下有“遠近聞而悲之”六字, 則抑或出於傳聞之訛耶? 是未可知也.

52) 감사는 대구 부사에게 명령하여 유연·춘수·박석을 잡아 가두게 했다. 유연의 아내 이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감사가 말했다. “달아난 자는 유유가 아니라 채유규다. 또 달아났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나 또한 유연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백씨가 호소하기를 그치지 않아 일을 처리하는 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일단 물러가 기다려라. 국문을 마치면 마땅히 바로잡을 것이다.” (監司令本官, 囚淵及春守, 朴石. 淵妻李氏訴, 則監司言: “逃者非游, 卽應珪也. 且逃有明驗, 我亦知淵冤. 但白氏訴不已, 事體不得不爾, 第退而待之. 鞫畢, 當直之.”)

53) 송하준, 앞의 논문, 39면.

보다 결과적으로 더 신빙성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상반된 주장을 담은 두 텍스트가 있다고 할 때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이냐를 묻는 식으로, 현재 우리가 규명할 수 없는 것을 묻는 연구 질문의 제기 방식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보다는 「유연전」과 같이 문학사 내에서 비교적 권위를 지니는 텍스트가 있다고 할 때, 그 문건이 산생된 역사적 맥락에 주목함으로써 해당 텍스트가 일차적으로 어떤 주장에 대한 반대항인지를 묻고, 그럼으로써 해당 텍스트가 당대에 어떤 기능을 지녔던가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가 제안하는 연구 질문은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못한 기존의 연구 질문보다 장점을 지닌다. 본고는 「이생송원록」을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유연전」이 ‘소설사’의 일부를 이루는 문예물이기 이전에 당대에 제기된 특정 주장에 대한 이견을 개선하는 글임을 규명할 수 있었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이항복의 「유연전」을 고찰하기 위한 작업으로써 유연 옥사를 다룬 신자료를 검토함과 아울러 「이생송원록」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이생송원록」의 저작 연대를 비정할 수 있었고, 「이생송원록」의 내용적 특징과 「유연전」 이해의 시각을 정립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다룬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전까지의 연구에서는 주로 「유연전」 자체에만 주목한 나머지 「유연전」이 어떤 다른 주장과 경합하는 주장을 제기하는 면이 있음이 드러날 수 없었다. 그러나 본고의 작업을 통하여 「유연전」이 그 자체로 공평무사한 텍스트가 아니며 상당히 논쟁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텍스트라는 점이 드러날 수 있었다. 이는 「유연전」 이면에 깔려있는 논쟁적 성격을 간과한 채 「유연전」이 문학 텍스트로서 지니는 장르적 성취에만 주목하는 접근 방식이 시정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생송원록」과 「유연전」이 일차적으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는 해당 텍스트가

당대에 경합하는 두 주장 중 한쪽을 옹호하는 데 바쳐져 있는 텍스트라는 당대 맥락 내에서의 기능적 측면을 부각하고자 했다. 후고에서는 이상에서 정립한 『유연전』 이해의 기본 시각에 입각하여 해당 작품의 성격과 가치를 기존의 관점과 달리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柳淵傳』,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920.0515 유연○)
권득기, 『만회집』, 道山學術研究院 편, 1997.
이항복, 『柳淵傳』,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박희병 표점·교역, 소명, 2005.
이항복, 「유연진」, 『봉이 김선달』, 박희병·정길수 역, 돌베개, 2018.

2. 단행본

- 박희병, 『한국고전소설 연구의 방법적 지평』, 알랩, 2019.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3. 논문

- 김영연, 「『이생송원록』을 통해 본 「유연진」과 유연 옥사 담론」, 『국문학연구』 제38집, 205~232면.
송하준, 「관련 기록을 통해 본 「유연진」의 입진 의도와 그 수용 태도」, 『원천 소재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수용 양상』, 학자원, 2017, 9~44면.
신상필, 「사실의 기록과 ‘傳’ 양식의 새로운 가능성: 「유연진」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제39집, 동방한문학회, 2009, 121~141면.
신해진, 「「유연진」의 악인 형상과 그 행방」, 『어문연구』 제54집, 어문연구학회, 2007, 243~274면.
이수봉, 「유연진 연구」, 『호서문화연구』 제3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83, 139~168면.
이현홍, 「實事의 小說化: 「柳淵傳」을 중심으로」, 『한국 고소설의 조명』, 아세아문화사, 1990, 355~372면.
정공식, 「「유연진」에 나타난 상속과 그 갈등」, 『법사학연구』 제21집, 한국법사학회, 2000, 83~100면.

4. 기타

- 유교넷, 고도서, 영남사림문집, 『樂齋集』 5, 「先考進士府君墓碣文」,
http://www.ugyo.net/cf/firm/ykFrm.jsp?CODE1=01&CODE2=01&CLSS=&B_SUJL_ID=KSAC_M_A02000016&B_BOOK_ID=KSAC_T_A02000016_003&B_KWON_ID=001&B_STYLE_ID=001&B_KISA_ID=00002

A Study on *Yisaengsong'wŏllok* in Comparison with *Yuyŏnchŏn*
Manuscript Held by Kyemyŏng University Library

Kim, Young-yeon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Yisaengsong'wŏllok*(A Record for redressing Mr. Yi's grievances) in comparison to a newly found manuscript, *Yuyŏnchŏn Husŏ*(Afterword to the Biography of Yuyŏn) included in *Yuyŏnchŏn*, held by Kyemyŏng University library. *Yuyŏnchŏn Husŏ* which has been known by its title without contents offers valuable information and insights into the understanding of *Yuyŏnchŏn* written by Yi Hangpok: first, the author of *Yuyŏnchŏn* which blames Yi Ji, Yu Yŏn's brother-in-law, doubted the culpability of Yi Ji; second, the impersonator Chae Ũngkyu was extremely successful in impersonating Yu Yu, Yu Yŏn's elder brother, hence many people were bewildered by Chae's fraud, which exculpates Yi Ji's intentional framing of Yu Yŏn. Also, 'Yuyŏnchŏn Husŏ' allows specifying the year *Yisaengsong'wŏllok* was written, which is after 1609. *Yisaengsong'wŏllok* elaborates *Yuyŏnchŏn Husŏ* by focusing on the following points: Yu Yŏn himself once misrecognized Ch'ae Ũngkyu as his own brother, which is silenced in *Yuyŏnchŏn*. These features imply that we need to take the historicity of literary texts more seriously rather than solely focus on aesthetic aspects of a given text.

keywords: *Yisaengsong'wŏllok*, Kwŏn Tŭkki, the Biography of Yuyŏn, Yi Hangpok, *Yuyŏnchŏn*, *Yuyŏnchŏn Husŏ*, *Oksasumal*.

접수일자: 2020. 3. 31.
심사기간: 2020. 4. 1.~2020. 5. 10.
게재결정: 2020. 5. 10.